

‘출범 2년’ 광주관광공사, 잇단 수상 쾌거

‘비젠허광주 SNS’ 공공브랜드 대상 등 2관왕 지방공공기관 혁신 공모전 ‘행안부 장관상’

출범 2년을 맞이하는 광주관광공사가 정부평가 등에서 최고상을 연이어 수상하는 등 대외적으로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관광공사의 관광 홍보 채널인 ‘비젠허광주 SNS’가 제2회 공공브랜드 대상에서 공익브랜드 부문 대상과 디지털마케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비젠허광주’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 SNS를 통해 광주의 매력적인 관광 자원을 국내 외에 알리고 있으며, 광주를 머물고 싶은 체류형 관광도시로 브랜드하기 위한 콘텐츠 등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한국공공브랜드진흥원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제2회 공공브랜드대상은 공익브랜드, 디지털마케팅, BI-캐릭터 등 공공의 역할에 기여한 지자체, 기관 등을 선발해 수상하고 있다.

광주관광공사는 앞서 지난 9월에도 ‘2024 지방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고상인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정부는 당시 전국 415개 지방공기업 및 845개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혁신 우수사례를 공모했고, 이 가운데 접수된

161개 사례에 대한 심사를 통해 광주관광공사를 최고 기관으로 선정했다.

이처럼 연이은 수상 성과는 민선 8기 들어 공공기관 구조혁신과 함께 ‘상상이 현실이 되는 플랫폼 도시 실현’을 목표로 하는 광주관광공사의 다양한 노력과 정책이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이번 2관왕은 공사 출범과 함께 진행된 광주관광 SNS 채널 리브랜딩과 솜뿔 콘텐츠 강화라는 전략적 개편을 통해 이뤄진 성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는 게 광주관광공사의 설명이다.

실제 주요 기획 콘텐츠로 국내 관광 트렌드인 원포인트 여행을 주제로 한 ‘전덕투어’, 광주 개최 축제 사전 정보 제공 및 생생한 현장을 전달한 ‘페스타 광주’ 등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 등을 통해 광주의 문화·관광 자원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올해에만 단일 콘텐츠 역대 최대 조회수 22만 회, 전년 대비 팔로워 5000여명 증가 및 인스타그램 이용자 상호 작용 100% 상승



김진강(가운데) 광주관광공사 사장이 최근 한국공공브랜드진흥원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 제2회 공공브랜드대상 공모전에서 공익브랜드 부문 대상과 디지털마케팅 부문 최우수상 등 2관왕을 수상한 뒤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김진강 광주관광공사 사장은 “이번 공공브랜드 대상 수상은 비젠허광주 채널 활성화를 통해 지역 관광산업 발전 및 관광도시 광주 홍보를 위해 기술인 노력의 결실”이라면서 “앞으로도 특색있는 콘텐츠와 차별화된 마케팅으로 광주를 매력적인 관광도시로 브랜드하고, 다시 방문하고 싶고 머물고 싶은 광

주도시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관광공사는 지난해 12월 18일 김대중컨벤션센터와 통합 출범하고, 어등산 관광단지, 영산강 100리 길 Y 프로젝트,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 등과 함께 2026년 광주 도시 이용인구 3000만 시대 실현을 목표로 제시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야생동물센터 611마리 구조했다

1~10월 천연기념물·멸종위기 251마리 치료 후 자연 품으로

광주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올 1~10월 수달, 팔색조 등 야생동물 총 611마리를 구조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중 251마리를 치료해 자연으로 돌려보냈다.

구조된 동물 중에는 수리부엉이(1마리), 팔색조(5마리), 참매(3마리), 하늘다람쥐(1마리), 붉은박쥐(1마리), 남생이(1마리) 등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이 다수 포함됐다.

구조 원인별로는 야생동물 번식기(3~8월) 동안 어미와 떨어져 미아로 구조된 경우가 241마리(4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방울벽·건물 유리창 등 충돌 사고가 181마리, 감염 병 34마리, 교통사고 19마리 등이었다.

광주야생동물구조센터는 2019년도 개소 이래 6년 동안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151종 3288마리를 구조해 이 중 1152마리를 자연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주변에서 다쳤거나 도움이 필요한 야생동물을 발견할 경우 광주야생동물구조센터(062-613-6651)로 연락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함께 해요! 광주시 ‘빛고를 사랑나눔 김장대전’

오늘~15일 명인 레시피에 국산 재료...기업·단체들 나눔 실천도

광주시가 올해도 어김 없이 지역민과 함께하는 ‘빛고를 사랑나눔 김장대전’을 시작한다. 김치경연대회 대통령상 수상자의 레시피와 100% 국산재료가 어우러진 고품격 김장김치를 시민과 함께 직접 담그고, 이웃 나눔도 실천한다.

광주시는 “2일부터 15일까지 남구 광주김치타운에서 ‘2024 빛고를 사랑나눔 김장대전’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빛고를 사랑나눔 김장대전’은 일반시민이 사전 주문한 절임배추와 김치양념으로 김장김치를 담글 수 있고, 기업이나 단체들이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행사다.

광주시는 김장문화 전승과 기부문화 확산, 농업인·김치업체 소득 증대, 손쉬운 김장담그기를 목적으로 2014년부터 김장대전을 개최하고 있다.

김장대전에 사용되는 배추·소금·고춧가루·멸치 액정은 광주·전남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공동구매 매체 시중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한다. 또 세계김치연구소와 김치경연대회 대통령상 수상자가 함께 개발한 조리법으로 만들어진다.

빛고를 사랑나눔 김장대전은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각 60팀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앞치마·장갑·그릇 등 김장비용을 무료로 제공한다. 빛고를 사랑나눔 김장대전 참여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 지

난해 1만 1700여명이 216t의 김치를 담갔다.

김장가격은 10kg 기준(절임배추 7kg+양념 3kg) ▲현장 배부림 6만 5000원 ▲완제품 현장수령 6만 7000원(10kg) ▲완제품 택배 7만원이다.

광주시는 김장절 외에도 언제든 맛있는 김치를 담글 수 있도록 5월부터 11월까지 매일 2·4주 김치담그기 연중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주최회 광주시 경제창업국장은 “빛고를 사랑나눔 김장대전이 입소문을 타고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행사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시민과 단체들에 감사드리며 이번 행사가 김치를 매개로 나눔과 소통을 실천하는 화합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동절기 임대주택 입주민과 소통 김승남(앞줄 왼쪽에서 세번째)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최근 공사 관리 임대주택 관리사무소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동절기 입주민 안전 확보 및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다짐하는 청렴다짐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광주도시공사 제공>

광주소방, 119뇌졸중 강사 양성 성과 ‘톡톡’

정확한 환자평가로 의료대란에도 병원 선정 등 대처

광주소방안전본부는 “119뇌졸중 강사를 양성하고 구급대원 역량 교육을 강화한 결과, 중증 심뇌혈관질환자에 대한 병원 전 처치 등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해부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협업해 119뇌졸중 강사를 양성하고,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중증 심뇌혈관질환자의 병원전 응급처치 향상 교육을 상·하반기로 나눠 시행하고 있다.

광주소방안전본부에는 현재 119뇌졸중 강사

12명이 활동 중이다.

119뇌졸중 교육을 받은 구급대원들은 신속·정확한 현장처치와 병원 선정 등 의료대란에도 중증뇌졸중 환자 대상 구급활동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게 시소방안전본부의 설명이다.

실제 해당 교육을 받은 한 구급대원이 지난 6월 북구 우산동에서 쓰러진 환자의 뇌졸중 증상을 조기 인지하고 환자 정보를 의료진에 신속하게 전달하고,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겨울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내년 3월까지 평일 오전 6시~밤 9시 단속...과태료 10만원

광주시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광주시는 1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인 이날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2021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예측하고, 계절관리기간에는 미세먼지 사전 예방적 관리를 위해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시는 특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작되기 한 달 전부터 광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계절관리제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으로 광주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 26㎍/㎥에서 지난해 17㎍/㎥으로 35% 이상 줄어드는 효과를 냈다.

단속 시간은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다. 단속은 광주시 주요 도로 9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통해 실시하며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CCTV 단속카메라는 동구 남문로(월남동 호반베르디움 건너편), 서구 무진로(유촌동 무진로우체국 옆), 남구 서문대로(송하동 효천역 건너편), 북구 동문대로(각화동 문화사거리), 북구 북문대로(운암동 문화예술회관 건너편), 광산구 상문대로(신촌동 송정장레스토랑 앞), 광산구 하남대로(월곡동 광산고용복지센터 앞), 광산구 북문대로(신창동 산원IC 부근), 광산구 무진대로(소촌동 소촌산단 출구) 등에 설치돼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선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